

# ‘특성 독성물질 금지’ 등 수출 기술규제 6건 이의 제기



## ‘WTO TBT 위원회’ 참가

캐나다·EU·인도 등 3국 대상 기술규제 애로 6건 해소 나서 국표원 “韓 수출지원 강화”

캐나다의 특성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 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

###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현황

캐나다	1건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EU	1건
무선통신기기에코디자인 규제	
인도	4건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조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조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

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4번째)과 관계자들이 상파울루지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 aT, 중남미 시장에 K-푸드 진출 본격화

### 브라질 상파울루 지사 개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중남미 시장 K-푸드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12일 K-컬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거대시장 공략을 위해 상파울루 지사를 개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개소식에는 황인상 주 상파울루 총영사,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Conab) 상파울루의 헤나다 모라이지 비센티 까마르고 지사장, 하운상 중남미 한국식품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아르헨

티나, 페루 등 K-푸드 수입바이어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6억 인구 중 3분의 1 수준인 2억1642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7위 인구대국이며,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 전체 중위연령이 31세 수준으로 인구 구성이 타 권역에 비해 젊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브라질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을 향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K-푸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브라질을 거점으로 남미 미개척시장 개척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등유·LPG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 지원

대상 가구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카드 신청 차상위, 행정복지센터 쿠폰 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다.

대상 가구는 오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는 소득기준과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등유 판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

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인데, 작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기한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용기한 중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상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전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따로 공급자가 신청하는 건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중소 올 퇴직연금 가입 5년간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이 올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향후 5년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800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중진공, 인적자원 진단모형 개발... 인재 육성에 힘써

올해 지원규모 40개社로 늘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적자원 개발(HRD) 진단모형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HRD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HRD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해 업종·업력·종업원 규모를 반영한 144개의 중소벤처기업 HRD 표준화

역량모형을 개발했다.

HRD 진단은 중소벤처기업 임원·관리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 HRD 현황을 사전조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HRD 수준과 필요역량을 파악해 공통·직급·직무별 교육과정 연계추천, 교육 계획 수립, HRD 로드맵 수립 등을 진단결과로 제시한다.

지난해 20개사를 대상으로 HRD 진단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의

95.6%가 진단결과를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함에 따라 올해는 지원규모를 4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IT업·도매업·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